# 어머니의 심리통제 및 아동의 행동적 자율성과 자기 통제력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Children's Behavioral Autonomy and Self Control on Children's Problems Behavior

나사렛대학교 아동학과
전임강사 전 숙 영**
Dept. of Child Studies, Korea Nazarene Univ.
Full-time Lecture : Jeon, Sook-Yo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children's behavioral autonomy and self control on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depression, anxiety, withdrawal, and aggression). The subjects were 293 6th graders residing in Cheonan. It was found that children's perceptions of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was significantly related with the level of children's depression, anxiety, withdrawal, and aggression. In addition, Children's behavioral autonomy was significantly predictor of depression and anxiety. Children's depression and aggression were influenced by self control of children. Finally the relative effect of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children's behavioral autonomy and self control on problems behavior were as follows. Children's depression and anxiety were predicted by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The other side withdrawal problem. was influenced by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on boys, by self control on girls. The children's aggression was influenced by self control in all cases.

▲주요어(Key Words) : 심리통제(psychological control), 행동적 자율성(behavioral autonomy), 자기통제력(self control), 행동문제(behavior problems)

* 이 연구는 2007년도 나사렛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주 저 자 : 전숙영 (E-mail : sook0830@kornu.ac.kr)

## I. 문제제기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4명 중 1명꼴로 정서와 행동에 문제를 갖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다(서울경제, 2006). 아동기의 문제행동은 청소년기의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청소년기로의 발달적 전환을 이루어야할 아동기 후기의 문제행동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아동기 후기인 학령기 말에는 학업에 대한 부담은 점차 커지고 대인관계의 폭도 점차 넓어지면서 학업과 또래관계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의존적이었던 부모-자녀관계에서 점차 독립의 욕구가 발현되는 시기이다. 그러나 인지적으로는 여전히 미숙하고 정서가 불안정한 아동들은 학업적인 것과 또래관계에서의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그 결과 보인 문제행동들이 종종 매스컴에 보고되고 있다. 그러므로 아동기에 겪을 수 있는 정서·심리적인 문제인 우울, 불안, 위축, 공격성 등의 문제행동은 아동이 처한 환경과 개인적 특성의 차원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아동기 후기의 이러한 변화 중 부모-자녀 관계의 변화는 의존적이었던 자녀가 점차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욕구가 발현되고 이에 따라 불평등했던 부모-자녀 관계가 점차적으로 좀 더 평등한 관계로 전환되는 것이 그 특징이다. 즉, 아동기 후기는 청소년기를 맞이하는 발달적 전환기로서 부모로부터의 의존에서 벗어나 독립을 하려는 욕구가 발달하는 등 자율성의 욕구가 발현되는 시기이다. 그러나 부모에게 여전히 의존해야하므로 의존과 자율성의 문제는 적절한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고 이러한 균형이 깨질 때 아동은 사회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정신분석적 관점에서는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적절한 갈등 수준은 부모-자녀간의 유대를 감소시켜 결국 자율성을 발달시키게 되고 이는 독립된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면서, 아동기 후기부터 나타나는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갈등과 긴장이 진정한 성숙을 위한 과정이라고 본다(Chen & Dornbush, 1998). 또한 인지적 접근에서는 아동기 후기에 발현되는 독립의 욕구는 의사결정의 상황에서 스스로 가능한 대안을 탐색하고 선택하며 이러한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질 줄 아는 자기 통제감을 갖는 것으로 실현된다고 보았다(Noom et al., 2001). 이 두 가지 관점을 모두 수용하는 절충적 접근은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친밀함과 독립성 사이의 적절한 조화 즉, 자녀는 부모에게 의존성을 적절히 유지하면서 자기 통제력을 갖고 개별화를 이루는 것이 건강한 발달이라고 주장한다(Cooper et al., 1983). 그러므로 부모자녀 관계, 아동의 자율성 및 자기통제력의 적절한 조화와 균형 및 발달은 건강한 성숙의 지표가 되며, 이것의 불균형은 문제행동의 발생을 예측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먼저 부모-자녀관계는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행동 및 태도로 연구되어 왔는데, 최근 부모의 양육행동 중 통제 영역을 개념적으로 구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Baber, 1996; Baber et al., 1994), 양육방식의 한 차원인 통제를 행동통제와 심리통제로 구분하고 있다. 행동통제는 자녀의 생활에 대한 감시와 규칙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자녀의 행동을 지도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개념이며(Baber, et al, 1994), 심리적 통제는 부모가 아동의 심리적·정서적 감정과 표현을 무시하고 억누르는 것으로 아동의 사고, 자기표현, 감정 등에 대해 애정을 철회하고 죄의식을 느끼게 하여 아동의 심리적 영역에 대해 통제하려는 시도를 의미하는 개념이다(Baber, 1996).

각각의 통제가 아동의 발달과 적응에 서로 다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행동통제는 아동의 문제행동 및 내면화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오히려 학업성취와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Baber, 1996; Steinberg & Fletcher, 1994; Crouter et al., 1990; Jacobson, 2000; 김미해 등, 2001)것으로 나타난 반면, 심리통제는 아동 및 청소년의 불안, 우울 및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Pettit et al., 2001; Baber, 1996; 김희화, 2003; 정윤주, 2004).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점차 독립의 욕구가 발현되는 아동기 후기에 부모가 아동의 심리적 영역을 지나치게 통제하려는 것은 부모에게 여전히 의존하도록 만들고, 따라서 독립과 의존이라는 갈등상황을 초래하여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Steinberg, 2002). 따라서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변인으로써 아동이 지각하고 있는 어머니의 심리통제 수준이 아동의 문제행동과 관련되는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아동의 개인적 특성 변인인 아동의 자율성에 대한 연구는 Steinberg와 Silverberg(1986)가 개념화한 정서적 자율성과 가족 내의 의사결정 상황에서 부모와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행동적 자율성에 대한 연구가 있다. 정서적 자율성에 대한 연구는 그 결과에 대해 논쟁이 있어 왔는데, 정서적 자율성 척도자체가 정서적 분리를 측정하는 것이라는 주장과(Ryan & Lynch, 1989) 정서적 자율성과 적응간의 관계에 대한 많은 국내외 연구 결과 역시 자녀의 정서적 자율성은 부모에 대한 애착 을 상실하는 불건강한 정서적 분리임을 밝히고 있다(Newcomb & Bentler, 1988; Ryan & Lynch, 1989; Coleman & Hendry, 1990; Hendry, 1993; 정진경 등, 2005; 김희화, 2005).

이에 반해 행동적 자율성에 대한 연구를 보면, 청소년들은 점차 연령의 증가에 따라 행동적 자율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도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며 의존하지만, 점차적으로 이전에는 부모의

책임 하에 있던 것들, 예를 들면 친구의 선택이나 자신의 외모와 관련해서 옷을 선택하거나 씻는 것 등에 대해서는 자신의 자율성의 주장이 증가하며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 (Bosma et al., 1996). 이러한 행동적인 영역에서의 자율성이 지나칠 경우 부모-자녀 관계에 갈등을 가져 올 수 있으나 (Montemayor & Hanson, 1985; Smetana, 1988; Steinberg, 1990; Smetana & Asquith, 1994), 아동이 부모-자녀 관계에서 의존적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되려는 욕구를 충족시키고 부모에게 자율성에 대해 인정을 받게 되면 건강한 자율성의 발달은 성공적인 청소년기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행동적 자율성은 후기 아동기에 어느 정도 발현되며, 이러한 것이 아동의 문제행동과 관련되는지를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통제력은 아동이 성숙과 함께 적절한 사회화 과정을 거쳐 점차적으로 발달시켜 가는 것으로 스스로 상황적인 요구에 적합한 행동을 할 수 있으며 미래의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일시적인 충동에 의하거나 즉각적인 만족을 자제하고 인내하는 능력을 말하며(이경님, 2000), 아동 중기쯤이면 적절한 자기통제력을 획득할 수 있는데(Berk, 1997), 자기통제력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아동 및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임을 밝히고 있다. 즉, 낮은 자기통제력은 행동문제와 정적 관계임을 밝히고 있는데, 특히 공격성, 우울, 컴퓨터 게임 중독과 같은 문제행동을 가져온다 (Patterson et al., 1989; 민수홍, 1996, 김두섭 · 민수홍, 1996; 강지원 등, 1996; 정혜승, 1996; 김선희 · 김경연, 1999, 남현미, 1999; 김선희, 2001; 송명자, 2003).

따라서, 아동기 후기의 문제행동과 관련된 변인을 탐색함에 있어 자기 통제력 역시 앞서 살펴본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행동적 자율성과 함께 연구될 필요가 있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건강한 자아정체감 형성을 시작해야하는 발달적 전환기에 놓인 학령기 후기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중요한 환경이라 볼 수 있는 부모자녀관계를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 수준으로 설정하고, 아동이 발달적으로 성취해야하는 아동의 행동적 자율성과 자기 통제력이 아동의 우울, 불안, 위축, 공격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들 변인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상에서 제기한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아동의 문제행동은 어머니의 심리통제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동의 문제행동은 아동의 행동적 자율성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아동의 문제행동은 아동의 자기 통제력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심리통제 및 아동의 행동적 자율성, 자기통제력의 상대적 설명력은 어떠한가?

## Ⅱ.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청소년기로의 진입을 앞둔 발달적 전환기인 학령기 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천안시 초등학교 6학년에 다니고 있는 아동 293명이었다. 연구대상 아동의 성별 인원구성은 남아가 149명(50.9%), 여아가 144명(49.1%)이었다.

### 2. 연구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 척도, 행동적 자율성 척도, 자기통제력 척도, 문제행동 척도(우울, 불안, 위축, 공격성)였다.

#### 1)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

아동이 어머니가 심리적 영역에 대해 통제한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ber(1996)가 개발한 심리통제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동이 어머니가 아동의 심리적 영역에 대해 통제하는 정도를 보고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심리통제 개념의 구성 요인인 자기표현 제한, 감정 불인정, 죄책감 유발 등을 측정하는 1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약간 그렇다(2점)', '그렇다(3점)'의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최소 16점부터 최고 48점까지의 범위를 갖고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아동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제한하고 감정을 인정하지 않으며,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등 아동의 개인적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심리적 자유를 구속한다고 느끼는 것을 말한다. 문항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 어머니는 나의 얘기를 귀기울여 듣지 않으시고 다른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다', '우리 엄마는 내 일에 자주 참견하신다', '우리 엄마는 가족의 문제를 내 탓으로 돌리신다' 등이다. 척도를 이루는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는(Cronbach's α)는.83이었다.

#### 2) 행동적 자율성

Bosma등(1996)의 'The Perspectives on Adolescent Decesion Making Questionnaire(PADM)'에서 제시된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의사결정 상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18개의 상황을 선별하여 총 1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행동적 자율성 척도는 의사결정 상황에서 부모와 독립적으로 자신이 결정하는 정도에 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취침 시간을 결정하는 것', '어떤 친구와 어울릴지 결정하는 것', '집안의 행사에 참여할 지를 결정하는 것', '외모나 머리모양을 결정하는 것', '용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등으로 구성되었다. 각 항목에서는 '항상 부모가 결정한다', '대부분 부모가 결정한다', '반반이다', '대부분 내가 결정한다', '항상 내가 결정한다'로 1점에서 5점으로 채점되고 총점의 범위는 18점에서 90점의 범위를 갖는다. 척도를 이루는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는(Cronbach's α)는 .85 이었다.

3)아동의 자기통제력

아동의 자기 통제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경님(2000)이 개발하여 사용한 자기통제력 척도를 연구자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원래 이 척도는 사려숙고성, 과제인내, 유혹저항, 저서통제, 친구관련통제, 교사관련 통제의 하위 변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4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연구자가 각각의 하위 영역에서 3문항씩을 선별하여 총 1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의 예를 들어보면,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는 곰곰이 생각을 하여 결정한다', '꼭 해야할 일이라도 지루하고 짜증이 나면 그 일을 끝까지 못한다', '숙제해야하는데 TV에서 재미있는 프로가 있으면 TV를 먼저본다', '나에게만 기쁜 일이 있을 때 주위를 생각해서 기쁨을 참는다', '친구가 시비걸때 먼저 참기보다는 같이 시비 걸고 싸우게 된다',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보시지 않으면 장난을 친다' 등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매우 그렇다'로 1점에서 5점으로 채점되고 총점의 범위는 18점에서 90점의 범위를 갖는다. 척도를 이루는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는(Cronbach's α)는.77이었다.

4) 문제행동

아동의 문제행동은 K-CBCL(오경자 외, 1997)의 우울(6문항), 불안(5문항), 위축(5문항), 공격성(10문항)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그렇지 않다(1점)', '가끔 그렇다(2점)', '자주 그렇다(3점)'의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으며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우울은 6점에서 18점, 불안은 5점에서 15점, 공격성은 10점에서 30점의 범위를 갖고 높을수록 우울하고 불안하며 위축되고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는 우울 Cronbach's α =.78, 불안 Cronbach's α = .71, 위축 Cronbach's α =.61, 공격성이 Cronbach's α = .77로 나타났다.

### 3.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이 연구를 위해 사용한 자료는 천안시 소재의 초등학교 2개교의 6학년 남녀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질문지는 연구목적을 충분히 이해한 각 학교 담임교사의 도움을 받아 아동에게 배부되었으며 배부된 질문지는 현장에서 응답하도록 한 후 회수하였다. 회수한 질문지 중 부실 기재된 자료를 제외한 후 293명의 자료가 SPSSWIN 프로그램으로 분석되었다. 연구문제의 고찰에 앞서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내적 합치도를 산출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특성 파악을 위해 빈도분석을 그리고 각 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구체적 연구문제 고찰을 위해 Pearson 상관관계, one-way ANOVA,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일반적 경향

연구문제 별 분석에 앞서서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았으며,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 수준을 살펴보면 남아가 여아보다 조금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동적 자율성은 여아가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자기 통제력은 비슷한 수준이나 여아가 다소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의 문제행동을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우울과 불안은 여아가 남아에 비하여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위축과 공격성은 남녀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2. 어머니의 심리통제, 행동적 자율성, 자기통제력, 문제행동과의 관계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 수준과 아동의 행동적 자율성, 자기 통제력과 문제행동이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는 아동의 자기통제력($r$=.16, $p$<.01) 우울($r$=.37, $p$<.001), 불안($r$=.40, $p$<.001), 위축($r$=.19, $p$<.001), 공격성($r$=.31, $p$<.001)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이 어머니가 자신의 심리적 영역에 대해 통제한다고 지각할수록 아동의 정서적 자율성은 높아지고, 우울, 불안, 위축, 공격성도 높았다.

<표 1>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 아동의 자기통제력 및 문제행동

| 변 수 | 성 별(n) | 평 균 | 표준편차 |
|---|---|---|---|
| 심리통제 | 남(149) | 26.13 | 6.10 |
| | 여(144) | 25.87 | 5.76 |
| 행동적 자율성 | 남(149) | 58.03 | 12.81 |
| | 여(144) | 63.76 | 10.13 |
| 자기통제력 | 남(149) | 44.56 | 8.00 |
| | 여(144) | 45.80 | 7.32 |
| 우 울 | 남(149) | 8.53 | 2.62 |
| | 여(144) | 9.26 | 2.57 |
| 불 안 | 남(149) | 7.64 | 2.28 |
| | 여(144) | 8.44 | 2.51 |
| 위 축 | 남(149) | 7.40 | 2.21 |
| | 여(144) | 7.52 | 2.0 |
| 공격성 | 남(149) | 15.57 | 3.97 |
| | 여(144) | 15.87 | 3.51 |

<표 2>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 행동적자율성, 자기통제력, 문제행동 간의 상관관계

| | 1 | 2 | 3 | 4 | 5 | 6 | 7 |
|---|---|---|---|---|---|---|---|
| 1.심리통제 | 1 | | | | | | |
| 2.행동적 자율성 | -1.0 | 1 | | | | | |
| 3.자기 통제력 | -.16** | -.07 | 1 | | | | |
| 4우울 | .37*** | -.11 | -.22*** | 1 | | | |
| 5.불안 | .40*** | -.12* | -.20*** | .59*** | 1 | | |
| 6.위축 | .19*** | -.10 | -.15** | .48*** | .47*** | 1 | |
| 7.공격성 | .31*** | -.06 | -.41*** | .45*** | .49*** | .30*** | 1 |

*p<.05, **p<.01, ***p<.001

또한 아동의 행동적 자율성은 아동의 불안($r$=-.12, $p$<.05)과 부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행동적 자율성이 낮을수록 아동의 불안 수준을 높게 나타났다. 한편, 아동의 자기 통제력은 우울($r$=-.22, $p$<.001), 불안($r$=-.20, $p$<.001), 위축($r$=-.15, $p$<.01), 공격성($r$=-.41, $p$<.001)과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자기 통제력이 낮을수록 아동의 우울, 불안, 위축, 공격성향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볼 때 어머니가 과도하게 아동의 심리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통제와 아동 자신의 낮은 자기 통제력은 문제행동 성향을 높이며, 아동의 행동적 자율성이 낮은 것은 불안 성향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3. 어머니의 심리통제 수준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 수준에 따라 아동의 문제행동 정도가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심리통제는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기준으로 점수가 M+SD/2 이상인 경우를 높은 집단, M+SD/2 미만이면서 M-SD/2 이상인 경우를 중간집단, M-SD/2 미만인 경우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우울, 불안, 위축, 공격성의 평균에 대해 F검증을 하고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남아의 경우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를 낮게 지각하는 집단이나 중간 집단 간에는 우울, 불안, 위축, 공격성 정도에는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높게 지각하는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우울, 불안, 위축, 공격 성향이 높았다.

여아의 경우는 남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를 낮게 지각하는 집단과 중간 정도로 지각

<표 3>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 수준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

| | | 우 울 | 불 안 | 위 축 | 공격성 |
|---|---|---|---|---|---|
| | | M(SD) Scheffe | M(SD) Scheffe | M(SD) Scheffe | M(SD) Scheffe |
| 남 | 상(52) | 9.90(2.89) a | 8.90(2.32) a | 8.19(2.41) a | 16.71(4.13) a |
| | 중(45) | 7.80(2.18) b | 6.98(1.95) b | 7.11(1.98) b | 14.87(3.66) b |
| | 하(52) | 7.79(2.15) b | 6.94(1.98) b | 6.87(1.98) b | 15.04(3.88) b |
| F | | 12.67*** | 14.56*** | 5.60** | 3.43* |
| 여 | 상(50) | 10.24(2.83) a | 9.64(2.59) a | 7.98(2.11) | 17.82(3.71) a |
| | 중(34) | 8.79(2.38) b | 7.97(2.37) b | 7.06(2.07) | 14.74(2.63) b |
| | 하(60) | 8.70(2.23) b | 7.70(2.16) b | 7.40(1.81) | 14.88(3.10) b |
| F | | 5.99** | 10.06*** | 2.38 | 14.00*** |

*p<.05, **p<.01, ***p<.001

<표 4> 아동의 행동적 자율성에 따른 문제행동

| | | 우 울 | 불 안 | 위 축 | 공격성 |
|---|---|---|---|---|---|
| | | M(SD) Scheffe | M(SD) Scheffe | M(SD) Scheffe | M(SD) Scheffe |
| 남 | 상(48) | 8.38(2.89) a | 7.02(2.25) a | 7.29(2.42) | 15.21(4.15) |
| | 중(69) | 7.93(1.89) a | 7.48(1.88) a | 7.26(1.91) | 15.26(3.43) |
| | 하(32) | 10.06(3.03) b | 8.91(2.68) b | 7.88(2.46) | 16.78(4.63) |
| F | | 8.06*** | 7.47*** | .94 | 1.92 |
| 여 | 상(83) | 9.33(2.51) ab | 8.47(2.52) ab | 7.27(1.86) | 15.96(3.64) |
| | 중(49) | 8.73(2.32) a | 7.96(2.32) a | 7.71(2.07) | 15.63(3.09) |
| | 하(12) | 10.92(3.37) b | 10.17(2.62) b | 8.50(2.43) | 16.17(4.43) |
| F | | 3.66** | 3.90** | 2.39 | .18 |

*p<.05, **p<.01, ***p<.001

하는 집단 간에는 아동의 문제행동 정도에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심리통제를 높게 지각하는 집단은 우울, 불안, 공격성향이 높았다.

한편, 여아의 경우 남아와 달리 위축정도는 어머니의 심리통제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3>.

### 4. 아동의 행동적 자율성에 따른 문제행동

아동의 행동적 자율성 수준에 따라 문제행동의 정도가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동의 행동적 자율성 수준은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 수준을 구분한 방법과 동일하게 세 집단으로 나누어 우울, 불안, 위축, 공격성의 평균에 대해 F검증을 하고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남녀 모두 행동적 자율성이 낮은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우울과 불안 성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위축과 공격성의 문제행동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 5. 아동의 자기 통제력에 따른 문제행동

아동의 자기 통제력에 따라 문제행동에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아동의 자기통제력 수준을 높은 집단, 중간 집단,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우울, 불안, 위축, 공격성의 평균에 대해 F검증을 하고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남아의 경우 자기 통제력이 높은 집단과 중간

<표 5> 아동의 자기 통제력에 따른 문제행동

| | | 우 울 | 불 안 | 위 축 | 공격성 |
|---|---|---|---|---|---|
| | | M(SD) Scheffe | M(SD) Scheffe | M(SD) Scheffe | M(SD) Scheffe |
| 남 | 상(35) | 8.11(2.04) a | 7.69(2.31) | 7.29(2.48) | 14.03(2.80) a |
| | 중(71) | 8.06(2.51) a | 7.23(2.19) | 7.18(2.07) | 15.28(4.05) a |
| | 하(43) | 9.65(2.94) b | 8.28(2.31) | 7.86(2.18) | 17.30(4.07) b |
| F | | 5.89** | 2.94 | 1.33 | 7.54*** |
| 여 | 상(26) | 8.85(2.75) | 7.65(2.26) | 7.08(1.79) | 13.08(1.83) a |
| | 중(74) | 9.20(2.41) | 8.41(2.48) | 7.41(1.98) | 15.28(2.89) b |
| | 하(44) | 9.59(2.75) | 8.96(2.62) | 7.98(2.11) | 18.50(3.54) c |
| F | | .72 | 2.25 | 1.94 | 30.48*** |

*p<.05, **p<.01, ***p<.001

<표 6>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 아동의 행동적 자율성 및 자기 통제력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 종속변수 | 구 분 | 독립변수 | Beta | R | $R^2$ | F |
|---|---|---|---|---|---|---|
| 우울 | 남(149) | 심리통제 | .338*** | .484 | .218 | 14.79*** |
| | | 자기통제력 | -.253*** | | | |
| | | 행동자율성 | -.170* | | | |
| | 여(144) | 심리통제 | .373*** | .984 | .129 | 8.06*** |
| | | 자기통제력 | -.032 | | | |
| | | 행동자율성 | -.007 | | | |
| 불안 | 남(149) | 심리통제 | .370*** | .504 | .238 | 16.42*** |
| | | 자기통제력 | -.139 | | | |
| | | 행동자율성 | -.268*** | | | |
| | 여(144) | 심리통제 | .398*** | .429 | .166 | 10.513*** |
| | | 자기통제력 | -.098 | | | |
| | | 행동자율성 | .051 | | | |
| 위축 | 남(149) | 심리통제 | .241** | .273 | .055 | 3.88* |
| | | 자기통제력 | -.071 | | | |
| | | 행동자율성 | -.074 | | | |
| | 여(144) | 심리통제 | .054 | .242 | .038 | 2.90* |
| | | 자기통제력 | -.175* | | | |
| | | 행동자율성 | -.119 | | | |
| 공격성 | 남(149) | 심리통제 | .187* | .380 | .127 | 8.18*** |
| | | 자기통제력 | -.296*** | | | |
| | | 행동자율성 | -.088 | | | |
| | 여(144) | 심리통제 | .323*** | .637 | .394 | 31.95*** |
| | | 자기통제력 | -.480*** | | | |
| | | 행동자율성 | .110 | | | |

*p<.05, **p<.01, ***p<.001

집단 간에 우울과 공격성의 정도에는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자기 통제력이 낮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우울과 공격성향이 높았다. 그러나 불안과 위축의 문제행동 정도는 자기통제력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경우 공격성만이 자기 통제력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자기 통제력이 높을수록 공격성향이 낮게 나타났으며, 우울, 불안, 위축의 문제행동은 자기 통제력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 6. 어머니의 심리통제, 아동의 자기통제력 및 행동자율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 아동의 자기통제력 및 행동적 자율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다.

먼저 우울에 대해 살펴보면, 남아의 경우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자기통제력, 행동자율성은 우울성향을 21.8% 설명해주고 있다. 그 중 어머니의 심리통제(β =.338, p<.001)가 우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며, 자기통제력(β =-.253, p<.001), 행동자율성(β =-.170, p<.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자녀의 심리적 영역을 과도하게 통제할수록, 아동이 자기 통제력과 행동자율성이 낮을수록우울 성향은 높아짐을 의미한다. 여아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심리통제만이 우울성향에 영향(β =.373, p<.001)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2.9%이다.

다음으로 불안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남아의 경우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행동자율성이 남아의 불안을 23.8%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영향력은 심리통제(β =.370, p<.001)가 행동자율성(β =-.268, p<.001)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경우는 심리통제(β =.398, p<.001)만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16.6%이다. 세 번째로 위축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어머니의 심리통제, 행동적 자율성, 자기통제력의 상대적 영향력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남아의 경우 어머니의 심리통제(β =.241, p<.01)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아의 경우는 자기통제력(β =-.175, p<.05)이 여아의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나 성차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격성에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남아는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자기통제력이 공격성을 12.7% 설명하며 그 영향력은 자기통제력(β =-.296, p<.001)이 심리통제(β =.187, p<.05)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경우도 남아와 비슷하여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자기통제력이 여아의 공격성향을 39.4% 설명하며, 영향력은 자기통제력(β =-.480, p<.001)이 어머니의 심리통제(β =.323, p<.001)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 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에서는 발달적 전환기인 아동기 후기에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행동적 자율성, 자기 통제력이 아동의 우울, 불안, 위축, 공격성과 어떻게 관련되며, 그 영향력은 어떠한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 수준과 아동의 문제행동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이 어머니가 자신의 심리적 영역에 대해 과도하게 통제한다고 지각할수록 아동의 문제행동의 경험을 더 많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아동의 행동적 자율성은 아동의 불안과 부적인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문제행동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행동적 자율성이 낮은 아동일수록 불안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불안 성향이 높은 아동은 적절한 행동의 자율성 습득에 어려움을 겪고 부모에게 의존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아동의 자기 통제력은 아동의 우울, 불안, 위축, 공격성과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스로의 욕구와 행동, 감정에 대한 통제가 어려운 아동일수록 우울과 불안, 위축, 공격성향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 후기에 겪을 수 있는 문제행동에 대해 부모의 양육방식, 아동의 자율성의 출현, 자기 통제력의 습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다.

두 번째,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는 아동의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의 경우 어머니의 심리통제 수준을 높게 지각한 집단이 더 우울하고, 불안하며, 위축되며, 공격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여아의 경우는 어머니의 심리통제 수준을 높게 지각한 집단이 더 우울하고 불안하며 공격적인 성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심리통제를 높게 지각하는 아동은 우울, 불안, 위축의 내현화 문제 및 비행, 공격성의 외현화 문제의 정도가 높다는 연구결과(Pettit, 2001; Baber, 1996; Aunola & Nurmi, 2005;, 김희화, 2003; 정윤주, 2004)와 일치한다. 이는 부모의 양육방식의 차원 중 통제 영역을 행동통제와 심리통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Baber, 1996)을 뒷받침 하는 결과로 볼 수 있으므로, 개념적으로 구분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한편, 여아의 경우 어머니의 심리통제는 위축행동을 예측하지 못했는데, 이는 아동의 성에 따라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방식, 친밀도, 개인적 이슈에 대한 개방 정도가 다르다는 연구 결론(Youniss & Smollar, 1985)과 연관 지어 볼 때, 위축된 여아의 경우 어머니의 심리통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한다. 또한, 여아의 위축

문제는 부모 환경적인 것 보다는 개인적인 특성이나 다른 변인에 영향 받을 수 있는 문제임을 시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여아의 위축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한 탐색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아동의 행동적 자율성은 아동의 문제행동 중 우울과 불안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이다. 남녀 모두 행동적 자율성이 낮을수록 우울과 불안 성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위축과 공격성의 문제행동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불안 성향이 높은 아동은 적절한 행동의 자율성 습득에 어려움을 겪고 부모에게 의존적임을 의미하므로, 행동적 자율성은 건강한 독립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행동적 자율성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행동적 자율성의 영향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우나 아동기 후기와 청소년기를 거친 행동적 자율성의 발달은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의 맥락에서 이루어질 때 긍정적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기 후기부터 나타나는 행동적 자율성이 건강한 자율성의 지표인지, 부모-자녀 관계의 갈등을 초래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네 번째, 아동의 자기 통제력은 아동의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아의 경우는 특히 우울과 공격성을 예측하며, 여아의 경우 공격성을 예측했다. 즉, 스스로의 욕구와 행동, 감정에 대한 통제가 어려운 아동일수록 우울과 불안, 위축, 공격성향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이는 낮은 자기 통제력은 공격성의 요인이며(Patterson, et al, 1989; Olweus, 1980), 비행의 원인(민수홍, 1996; 김선희, 2001)이라는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므로 아동기 후기부터 발현되는 독립성에 대한 욕구로 인한 부모-자녀 관계의 갈등이나 발달적 위기에 대해 부적합한 방법으로 표출된 문제행동을 예방하는 보호요인으로 자기 통제력의 발달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특히 자기 통제력이라는 것은 상황과 관계에 대한 통제이므로 개인적이고 기질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 위축과 불안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어머니의 심리통제, 행동적 자율성, 자기통제력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각각의 문제행동마다 그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즉, 아동의 우울과 불안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로 나타났다. 반면, 위축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남학생의 경우 어머니의 심리통제이며, 여학생의 경우는 자기 통제력인 것으로 나타나 남녀 차이를 보였다. 공격성에 대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남녀모두 자기 통제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자녀의 심리적 영역에 대해 인정하고 지지해 주는 것과 아동 스스로 행동적 자율성을 가지며 자기 통제력을 습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시사해준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심리통제를 아동이 지각한 주관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어머니 자신이 보고한 심리통제와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심리통제의 차이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연구는 아동기 후기에 발현되는 자율성의 개념을 행동적 자율성의 관점에서만 고찰하였다. 아동의 자율성의 발달은 정서적, 행동적, 기능적(태도적)인 측면 모두에서 이루어진다. 이후 연구에서는 자율성의 측면 모두를 다각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자율성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부모의 양육방식의 통제차원에 대해 보다 심도 깊게 개념적으로 구분한 심리통제 영역과 아동기 후기 발현되는 자율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자기 통제력의 개념과 함께 규명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현대사회의 아동이 겪는 과도한 학업적 스트레스 및 대인관계의 문제를 중재하고 미리 예방하기 위해 상담현장에서 부모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밝혀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기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상담함에 있어서 부모 및 상담자, 교육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아동의 건강한 자율성의 발달과 자기 통제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접 수 일 : 2007년 05월 15일
□ 심 사 일 : 2007년 05월 28일
□ 심사완료일 : 2007년 08월 01일

【참 고 문 헌】

강지원 · 김성이 · 구본용 · 황순길(1996). **청소년 비행 상담.** 청소년대화의 광장.

김두섭 · 민수홍(1996). **개인의 자기 통제력이 범죄억제에 미치는 영향.** 서울: 형사정책연구원

김미해 · 옥경희 · 천희영(2001). 초기 청소년기 방과 후 활동과 학업성취 및 사회적 발달. **대한가정학회지, 39(6),** 93-108.

김선희 · 김경연 (1999). 아동의 행동문제와 관련 변인과의 인과관계. **가정관리학회지, 17(1),** 155-166.

김선희(2001). **자기통제력과 청소년비행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희화(2003). 청소년의 문제행동 및 인터넷 비행에 대한 모 감독과 심리적통제의 영향. **청소년학연구, 10(3),** 133-153.

김희화(2005). 초기 청소년의 정서적 자율성과 심리적 복지감 및 비행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감독의 영향. **청소년학연구, 12(4),** 151-168.

남현미(1999).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친구특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민수홍(1996). **비행의 조기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형사정책연구원.

서울경제(2006). 급증하는 아동정신장애. 2006. 8.23.

송명자(2003). **발달심리학.** 학지사.

오경자 · 이혜련 · 홍강의 · 하은혜(1997). **아동 · 청소년 행동평가척도 (K-CBCL).** 중앙적성 연구소.

이경님(2000), 아동의 자기통제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인간발달연구 7(1),** 99-120.

정윤주(2004).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심리통제와 아동의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25(6),** 205-223.

정진경 · 오경자 · 문경주 · 조아라(2005).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과 비행: 정서적 자율성과 행동적 자율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임상, 24(4),** 755-770.

정혜승(1996).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자기통제성 및 비행기회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unola, K., & Nurmi, J. E.(2005). The role of parenting style in children's problem behavior. *Child Development, 76*(6), 1144-1159.

Baber, B. K.(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6), 3296-3319.

Baber, B. K., Olsen, J.E., & Shagle, S. C.(1994). Associations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and behavior control and youth internalized and externalize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5*(4), 1120-1136.

Berk, L. E.(1997). Child development(4th), Allyn and Bacon.

Bosma, A., Jackson, S. D., Zijsling, D. H., Zani, Z. B., Cicognani, E., Xerri, M. L., Honess, T. M., & Charman, L. (1996). Who has the family say? Decisions on adolescent behavior within the family. *Journal of Adolescence, 19,* 277-291.

Chen, Z. & Dornbush, S. M.(1998). Relating aspects of adolescent emotional autonomy to academic achievement and deviant behavior.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3,* 293-319.

Coleman, J. C., & Hendry, L.(1990). *The nature of adolescence*(2nd e). London: utledge.

Cooper, C. R., Grotevant, H. D., & Condon, S. M. (1983). Individuality and connectedness in the family as a context for adolescent identity formation and role-taking skill. In H. D. Grotevant & C. R. Cooper(Eds.),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Adolescent development in the family, 22.* 43-59. San Francisco: Jossey-Bass.

Crouter, A. C., MacDermind, S. M., & Perry-Jenkins, M. (1990). Parental monitoring and perceptions of children's performance and conduct in dual-and single-earner families. *Developmental Psychology, 26*(4), 649-657.

Hendry, L. B.(1993). *Growing up and growing out.* Aberdeen, S.D: Aberdeen University Press.

Jacobson, K. C.(2000). Parental monitoring and adolescent adjustment: an ecological perspectiv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0(1), 65-97.

Montemayor, R. & Hanson, E. (1985). A naturalistic view of conflict between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and sibling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5,* 23-30.

Newcomb, M. D., & Bentler, P. M.(1988). *Consequences of adolescent drug use: Impact on the lives of young adults.* Newbury Park, CA:Sage.

Noom, M. J., Dekovic, M., & Meeus, W.(2001).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adolescent autonom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5), 577-595

Olweus, D.(1980). Familial and temperamental determinants of aggressive behavior in adolescent boys: A caus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16(6), 644-660.

Patterson, G. R., DeBaryshe, B. D., & Ramsey, E.(1989).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antisocial behavior.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44,* 329-335.

Pettit, G. S., Laird, R. D., Dodge, K. A. Bates, J. E., & Criss, M. M.(2001). Antecedents and behavior problem outcomes of parental monitoring and psychological control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2(2), 583-598.

Ryan, R. M., & Lynch, J. H.(1989). Emotional autonomy versus detachment: Revisiting the vicissitudes of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Child Development, 60*(2), 340-356.

Smetana, J. G.(1988). Adolescents' and parents' concep-

tions of parental authority.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9, 321-335.

Steinberg, L.(1990). *Autonomy, conflict, and harmony in the family relationship.* In S. S. Feldman & G. R. Elliot (Eds.),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N.Y.: Russell Sage Foundation.

Smetana, J. G., & Asquith, P. (1994). Adolescents' and parents' conceptions of parental authority and personal autonomy. *Child Development, 65*(4), 1147-1162.

Steinberg, L.(2002). *Adolescence.*(6th ed). Boston:McGraw-Hill.

Steinberg, L., & Fletcher, A. P.(1994). Parental monitoring and peer influences on adolescent substance use. *Pediatrics, 93*(6), 1060-1064.

Steinberg, L., & Silverberg, S. B.(1986) The vicissitudes of autonomy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7 (4), 293-302.

Youniss, J., & Smollar, J. (1985). *Adolescent relations with mothers, fathers, and friends.* Chicago:University of Chicago University Press.